

사라진 유원컴퓨터



한 방 숙

1990년 3월 15일 유원건설 전산실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설립된 유원컴퓨터는 유원건설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속에 설립되었다. 유원건설의 인원감축에 따른 전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전산직원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보장받기 위해 10년의 건설 전산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된 것이다. 물론 전 직원의 만장일치와 작고한 유원건설 최효석 회장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나, 재산 도피 수단이라고 판단한 유원건설 노조의 반대에 부딪쳤고, 청문회식으로 노조 간부들과 토의한 결과, 노조 직원도 주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약력 : • 69~79 동아제약 • 81~90 유원건설 전산실 • 90~95 (주)유원컴퓨터 대표이사 • 95~97 산업정보기술(주) 대표이사 • 현재 여명소프트(주) 대표이사

합의함에 따라 유원컴퓨터의 총 주주수는 약 130명에 이르렀다.

어렵게 설립된 회사이다보니 직원들의 반대로 대표이사 차량도 개인 비용으로 마련하였으며, 회사의 모든 실적은 투명하였다. 19명으로 시작한 유원컴퓨터는 불과 2년만에 45명이 되었으나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년도 안돼서 믿었던 3명이 이탈한 것은 큰 타격이었다.

제일 큰 문제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간부 전원의 학력이 고졸이고 한명만이 전문대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물론 Programming은 잘 하지만 Manager로서의 역할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Project 수행시 PM역할과 고정관념에서의 탈피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간부사원을 채용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였고, 또한 채용한다 해도 기존 간부사원의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래 근무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주주라는 생각에서 주주와 직원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었으며, 기업의 영유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점이다.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면 자신들이 잘 한 것으로 보너스를 우선 생각하고, 적자시는 대표이사의 책임이라는 사고방식이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10년간의 건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분야에 집중된 영업정책과, 전직원의 주인의식하에 사업실적은 비교적 양호하였다.

93년도의 유원건설 전산시스템은 10년간 사용한 IBM System H/W문제와 S/W환경의 변화로 인해 C/S 환경의 Windows용 Application으로 재구축되어야 했으며, 이는 차기 영업의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유원건설측을 설득하였다. 이 시점에서 유원건설이 동화은행으로부터 50억 차입에 대해 1년간 기업입보를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것이 유원컴퓨터의 종말을 가져온 원흉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1년후 유원건설로부터 미수금 5억을 박기 위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을 요청해 와 부득이 승낙을 하였으며 그때부터 흥망의 동반자가 되었다.

94년 9월부터 잠을 설치다가 95년 3월 이철수 제일은행장이 유원건설의 부도는 안낸다는 발표로 한숨을 돌렸으나, 그해 4월 갑작스런 부도처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우선 직원들의 개인 보증 부분부터 말소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각종 적금을 해약했고, 재고 상태인 삼성P/C 25대를 구입가보다 약 15% 할인해 용산에서 현금화했으며, 용인축전S/W단지 4구좌를 비밀리에 급히 매각하고, 부산 모건설회사의 4500만원짜리 어음(1개월)을 9%에 할인하였다. 유원컴퓨터 발행 어음은 75%에 회수하여 3일만에 1차로 정리를 하고 상황을 주시하였다. 곧이어 은행으로부터 변제요구가 시작되었다. 유원건설의 전산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화은행과의 줄다리기로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비밀리에 유원컴퓨터의 일부 매각을 2개 회사와 구체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95년 5월 18일 밤 11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긴급히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법적 문제를 해소시켰다.

유원건설 전산운영팀 신입사원과 병력특례자를 포함한 12명을 남기고, 감량경영이란 명목으로 밀린 급상여와 퇴직금을 받은 35명 전원이 산업정보기술(주)로 영업권, 고정자산 및 비품과 함께 이동하였다. 곧이어 동화은행에서 고정자산 및 비품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으나 그때는 책상 몇 개와 P/C 12대 뿐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유원건설이 법정관리체계로 되면서 유원건설의 전산운영용역비로 유원컴퓨터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졌고, 한보에서 유원건설을 수한 후 전산운영을 맡고 있는 유원컴퓨터를 인수할 의사를 표명하여, 총 주식의 95% 이상 인수를 보장하고 주식 가격은 실사 후 장부가격으로 인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주당 10,000원으로 주가가 결정된 후 모든 주주를 설득 약 99%의 주식을 한보정보통신에서 인수하게 되었으며, 인수시킨 후 필자는 산업정보기술(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자본주와의 경영이념 차이로 97년말 IMF 발생과 함께 산업정보기술에서 퇴진하게 되었고, 유원컴퓨터는 한전정보통신과 합병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한보 부도후 그 직원들은 다시 유원건설 전산실로 자리를 바꿔 유원컴퓨터 탄생 이전의 상태로 복귀되었다.